

상악의 완전무치악에서 IMZ Implant를 이용한 Fully Bone Anchored Fixed Bridge의 증례보고

고려대학교 치과학교실 최종인, 이정렬, 신상완, 서규원

Bränemark 등이 osseointegrated implant 를 고안하고 정의한 이래로 다양한 implant system 이 고안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골융합성 임플란트에서의 교합압이 자연치와는 달리 치근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골조직으로 전달되어 주위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이런 가정하에서 개발된 것이 IMZ Implant이다. 이 IMZ Implant는 1972년 Kirsh 와 Koch 가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1978년 현재와 같은 자연치의 치근막과 유사한 유동성을 갖는 Implant로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IMZ Implant에서 초기에 Design된 IME(Intramobile Element)는 쉽게 파절되는 단점이 있어, 1991년 IMC(Intramobile Connector)로 교체되었다. 본 증례는 IMC를 이용하여 보철수복을 해준 결과 약 1년만에 보철물의 framework및 screw의 파절이 있었다. 파절의 원인은 IMC를 사용하여 최종 보철수복을 시행할 때 보철물의 정확한 fitting을 감별하기 어렵고, 아울러 stress가 coping screw에 집중되어, 교합압 작용시 IMC의 elasticity 때문에 framework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이때문에 Metal IME 로 교체한 후 Distal extension cantilever fully bone anchored fixed bridge를 수복 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